



검은머리쑥새 / *Emberiza schoeniclus*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|
| 생물분류 | 야생동물 |

| | |
|------|--|
| 속국명 | 멧새속 |
| 과국명 | 멧새과 |
| 과명 | Emberizidae |
| 일반특징 | <p>수컷의 여름깃(짹짹기를 하는 시기가 되어 봄철 털갈이로 난 깃)은 머리와 턱 아래 부위가 검은색이며 윗목은 흰색이고 등은 갈색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. 암컷은 머리가 갈색이고 흰색의 눈썹 선이 있다. 또한, 등은 갈색이고 검은색 줄무늬가 있으며 배는 옅은 황갈색바탕에 갈색 줄무늬가 있다.</p> <p>짹짹기 시기에는 평지의 습지, 아닌 때에는 갈대밭에서 관찰되고 풀밭의 땅 위나 잡초의 뿌리에 마른풀로 오목한 모양의 둥지를 만든다. 알은 옅은 회색 바탕에 갈색 점이 있으며 짹짹기 후 보통 4~5개 정도 낳는다. 사는 곳은 유럽을 포함한 서북쪽 지역에서 아시아의 동북쪽까지 매우 넓다. 북쪽에서 짹짹기를 하는 무리는 남부지역에서 겨울을 나지만, 남쪽에서 번식하는 무리는 그 동네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텃새이다.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에 드물게 관찰된다.</p> |